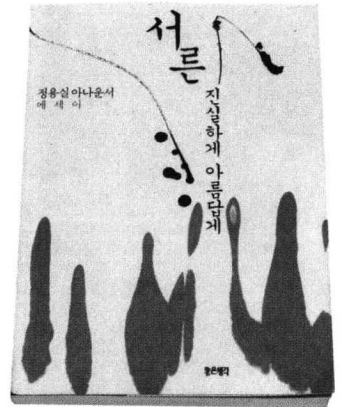


아나운서 정용실

“독서와 함께 한 30대,
그 행복한 시간 담았어요”





정용실 아나운서를 방송이 아닌 책으로 만났을 때, 조금 낯설었다. 지난해 끝자락에 그녀가 펴낸 《서른 진실하게 아름답게》가 요즘 흔하게 나오는 여느 유명인의 에세이집과 달랐던 탓이다. 책에는 이제 막 30대를 통과한 한 여인의 자기고백이 담겨 있다. 그 모든 이야기는 ‘책’을 매개로 펼쳐진다.

“개인적으로 30대를 의미 있게 정리하고 싶었어요. 출간을 기획한 건 5년 전 부터였죠. 책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독서가 유익하고 즐겁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그 후로 꾸준히 책을 읽고 방송에 도움이 될까 싶어 짝막한 감상들을 노트에 적곤 했어요. 그런 리뷰들을 모아서 펴냈죠.”

그녀에게 책은 인생 향로의 방향을 잡아준 나침반이자 타인과의 소통을 위한 도구였던 듯 싶다. 《서른 진실하게 아름답게》에는 책을 통해 얻은 성찰이 온전히 그녀 자신의 것으로 체화되는 과정이 펼쳐진다. 내면의 기록이면서 진실된 삶의 가치를 찾아가는 진지한 여정을 담아낸 여행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 때로 거침없이 달려가는 또 어느 때엔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그녀의 30대를 곁에서 함께 동행한 느낌이다. 그녀는 앞으로 남은 긴 여행을 위해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품었을까.

“책에 담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어요. 아직 내공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용기를 냈죠. 내용도 아이, 남편, 가정 이야기가 가장 많아요. 그 자체가 솔직한 저의 30대 이야기거든요. 이제 한 단락 마무리를 짓고 40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준비중이에요.”

정 아나운서는 방송인이라는 직업이 독자들의 주목을 끄는 데 이용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말했다. 진솔한 글 자체로 읽는 이들의 공감을 얻어내고 싶다는 소박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군더더기 없고 담백하면서도 어딘지 마음을 어루만지는 문체는 읽는 이의 시선을 편하게 붙든다. 타고난 글썬씨 덕분인가. 글맛이 달다. 곳곳에는 그녀에게 깨달음을 안겨준 작가들의 글이 덧붙여져 있어 독자들은 책 속에서 또 다른 책을 만날 수 있다.

“좀 더 좋은 책을 소개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서 그랬는지 마지막 원고 정리 할 때는 몸에 무리가 왔어요. 책 속에는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진짜 지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즐거움이 커서 욕심이 나더라고요. 어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유럽문화는 돈만이 아니라 책을 통해 형성된 지식인들의 탄

탄한 저변 문화를 기반으로 움직인다는 말을 듣고 많이 공감했어요. 우리나라도 대중이 책을 통해 정보 선별의 힘을 갖게 되고 더 풍부한 문화 감수성을 키운다면 사회가 흔들리지 않으리라 생각해요.”

여러 단체에서 주관하는 책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책에 대한 행복한 기억을 가진 사람은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체험했고 그래서 그 행복한 기억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바람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그녀에게 이제 책은 가장 중요한 스승이며 동반자다. 바쁜 일과를 쪼개어 자투리 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는다. 집과 회사, 이동 중에도 항상 책을 들고 있다. 그 중 여성 작가들의 글을 즐겨 읽는다.

“제가 관심을 갖는 분야가 여성학 쪽이에요. 이제는 스페셜리스트가 되어야 하는 시대잖아요. 전문적으로 공부해야 할 관심분야를 찾는 것이 40대에 이뤄야 할 숙제겠죠.”

그녀는 책에서 밝힌 대로 “마흔, 불혹의 나이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방황하고 싶다”며 스스로에게 던진 과제에 답을 찾기 위해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

“직장을 갖고 있는 주부로서 사회에서의 정체성 고민은 늘 현재 진행형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환경 속에서 저 역시 여성 방송인이 안고 가야 할 철학과 현실, 더 나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

취재 송보경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